

양홍석 농구대표팀 차출…KT 주말 2연전 돌파구는?

위기의 KT, 양홍석 빈자리 잇몸으로 메운다



공동 4위까지 내려앉은 부산 KT에 또 악재가 날아왔다. 포워드 양홍석이 2019 FIBA 농구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레바논 원정을 떠나는 대표팀 차출로 주말 2연전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동아 DB

양홍석 없이 16일 전전전·17일 SK전
덴트몬도 햄스트링…벤치멤버 풀가동

부산 KT에게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KT는 지난 13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진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원주 DB에 53-80으로 대패하면서 3연패 늪에 빠졌다. 올 시즌 프로농구는 중위권이 혼전이다. 매 경기 결과에 순위가 바뀔 정도다. 이 때문에 연패는 치명타다. 3연패를 당한 KT는 22승21패가 되면서 공동4위로 내려왔다. 연패를 끊지 못한다면 바로 뒤를 쫓고 있는 6위 DB(22승22패), 7위 전주 KCC(21승22패)에게도 자리를 내줄 수 있다.

경기력이 점점 떨어져 서동철(51) 감독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팀 공격에 큰 힘이 됐던 외인 가드 저스틴 덴트몬(34)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A매치 휴식이 이후어나 출전이 가능하다. 가독이나 공격 자원이 부족할 가운데에 포워드 양홍석(22)이 대표팀 차출로 주말 2연전에 출전할 수 없다.

양홍석은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원정(레바논 베이루트)에 나서는 한국남자농구대표팀 명단에 포함됐다. 농구대표팀은 이번 원정에 대비해 15일부터 수원 KT올림픽체육관에서 소집 훈련에 돌입한다.

타 구단도 대표팀 차출 선수가 주말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장신 포워드 자원이 한정된 KT에서 경기당 13.3점·6.8리바운드를 기록 중인 양홍석의 공백은 매우 커 보인다.

KT는 덴트몬, 양홍석 없이 주말 2연전(16일 전자랜드, 17일 SK)을 치러야 한다.

16일 경기는 KT의 홈인 부산사직체육관, 17일 경기는 SK의 홈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백투백 경기 자체로도 피로도가 상당한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장거리 이동은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서 감독은 “자꾸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다. 양홍석이 대표팀에 차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다른 팀도 주축 선수들이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나머지 선수들이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는 올 시즌 내내 주축선수들의 줄 부상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고비를 넘기면서 중상위권 순위를 유지해왔다. 서 감독은 “주말 2연전을 마치면 A매치 휴식기가 있다. 전력을 추스를 수 있는 기회다. 우리 선수들이 계속 고비를 잘 넘겨오지 않았다.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경기 동탄블루윙즈와 강원 원주LEADER 선수들이 14일 군산에서 열린 2019 금석배 축구대회에서 볼을 다루고 있다.

사진제공 | KFA

‘8인제 축구’를 아시나요?

12세 이하 초등부 ‘금석배’ 군산 달귀
선수교체 무제한·경기중 코칭도 금지

“○○야, 여기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왼쪽으로 움직여, 내가 짧게 찰게” 평소와는 달랐다. 5~6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마추어 축구 현장에는 지도자의 짜릿짜릿한 목소리와 학부형들의 환호, 탄식이 가득했다. 이제는 아니다. 경기장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선수들이다.

14일 전북 군산에서 개막한 2019 금석배 축구대회는 이전의 익숙한 스타일이 아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아심 차게 도입한 8인제다. 올해부터 초등부 축구(12세 이하)는 8인제로 시행된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대한체육회가 5월 개최할 전국소년체육대회 역시 8인제 형식이 확정됐다.

규칙이 흥미롭다.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뛰도록 교체 제한을 폐지했다. 공간 활용과 빌드-업을 위해 골키퍼가 하프라인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스스로가 상황을 판단하고 플레이하도록 경기 중 지도자들의 코칭을 금지시켰다.

발서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선수 숫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팀들이 희망을 얻었다. 전체 인원이 8명으로 딱 맞춘 팀들도 전국대회에 참여하게 됐다. 아예 교체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으나 만약 8인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아예 해체의 길을 밟을 뻔한 팀들이다. 선수들의 진로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긍정적이다.

그라운드가 떠들썩해졌다는 점은 축구 인들을 더 없이 흐뭇하게 한다. 경기를 만들어가는 건 선수 자신이다. 서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전·후반 25분씩, 총 50분 경기를 풀어나갔다. 협회 홍보보 전문은 “축구를 아이들이 직접 읽고 소통한다.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좁은 지역에서 많은 기회가 열리다보니 찬스도 늘어났다. 협회의 미하일 팔러 기술발전위원장(독일)은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12세 이하다. 자신이 판단하고 개인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 8인제가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군산 | 남정환 기자 yoshike3@edonga.com

한국인 축구 지도자 상종가, 왜?

최현길의 스포츠에세이

1997년 강등위기 연변팀 살린 최은택
한국인 감독이 中 리그 설 자리 만들어
리그 승격·리그컵 우승 윤정환 J리그 통
최근 박항서 열풍에 동남아서도 상종가

예전 축구감독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초청 형식이었다. 축구는 가르치고 싶은데 돈이 궁한 나라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지도자를 파견했다.

축구감독 중 처음으로 외국팀을 맡는 경우는 장경환(1925~2001년) 감독이다. 네팔의 요청으로 1973년부터 지휘봉을 잡았다. 시설이나 장비가 부족한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돈이 없어 감독의 주머니를 털어 훈련복을 마련했다. 점심을 거르는 네팔인의 식습관 때문에 선수들의 영양관리에 애를 먹기도 했다.

상황은 여의치 않았지만 그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도했다. 평가도 좋았다. 파견 2년이 끝나 귀국했지만 네팔의 요청으로 다시 나갔다. 지도자 교류가 한국과 네팔의 무역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도 전해진다.

축구협회는 2000년대 이후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내보냈다. 대표팀은 물론이고 올림픽 팀이나 청소년팀까지 연명을 가리지 않았다. 강병찬(부탄) 유기홍(네팔,부탄) 최영준(브루나이) 김신환(동티모르) 권오순(브루나이) 김상훈(괌) 장정(스리랑카) 이태훈(캄보디아) 감독 등이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어려운 여건을 마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다.

클럽 지도자로 나간 경우는 중국이 다수를 차지한다. 가장 먼저 선봉을 일으킨 지도자는 최은택(1941~2007년) 감독이다. 1997년 강등 위기의 연변팀을 맡아 4위로 끌어올리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자금이 부족해 무보수로 일했고, 독특한 지도와 탁월한 전술 능력으로 존경을 받았다. 최 감독의 발자취 덕분에 김정남, 이장수, 차범근 등 내로라하는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윤정환 감독이 이름을 날렸다. 사간 도스에서 선수로 은퇴한 뒤 2011년 감독이 된 그는 팀을 처음으로 1부 리그(J1)로 승격시켰다. 2017년 세레소 오사키를 맡아 리그컵과 일왕배에서 우승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외진출 지도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변했다. 지도자의 결과에 국내 팬들이 즉각 반응한다. 지도자의 마음가짐이



최은택 감독



윤정환 감독



최광희 감독



박항서 감독

달라진 건 물론이다. 성과도 나왔다. 그러다 보니 국내 지도자들이 살맛 날 정도로 찾는 곳이 늘었다.

베트남축구의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의 영향이 크다. 베트남만 하더라도 대표팀을 맡은 박 감독을 비롯해 리그에만 3명이 포진했다. 정해성 감독은 호치민FC 감독으로 부임했다. 캄보디아를 이끌던 이태훈 감독은 정 감독의 후임으로 호앙아인잘라이 사령탑에 올랐다. 이흥실 감독은 승격팀 비엠텔FC를 지도한다.

K리그 최고 지도자로 평가받은 최광희 감독은 중국 무대에 도전한다. 그는 몇 해 전부터 중국 클럽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최근 다렌 이팡과 계약하며 중국 무대 평정에 나섰다. 황선홍 감독은 올 시즌 연변을 맡았고, 박태하 감독은 중국여자대표팀(B)을 지도한다. 최진한, 최진철, 이은재 등은 중국 25세 이하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합류했다.

그동안 중국축구는 유럽이나 남미 출신 지도자를 선호했다. 돈도 많이 썼다. 하지만 성

과를 내지 못하자 한국의 훈련 스타일과 정신력을 배우려는 노력을 엿보인다.

신태웅 전 대표팀 감독에게는 태국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국 출신 감독을 통한 베트남의 성공을 지켜본 태국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소문이다.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앞으로 더 많은 지도자들의 외국행이 이뤄질 것이다.

우선 우리 지도자의 수준이 높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굵직한 대회를 경험한 노하우는 무시하지 못한다.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다. 팀을 위해 헌신할 줄도 안다. 승부사 기질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고 거들먹거리지는 않는다. 겸손하다. 선수들과 소통하고 팬들의 눈높이를 맞출 줄도 안다.

이제 국내 무대는 좁다. 더 많은 지도자가 외국으로 나갔으면 한다.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그게 바로 애국이다.

전문기자·체육학 박사 choihg2@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스포츠도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13일

2018-2019 SKT 5GX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현대모비스	44	34	10	0.773	0	5승
2	전차랜드	43	29	14	0.674	4.5	1패
3	LG	43	23	20	0.535	10.5	1승
4	오리온	43	22	21	0.512	11.5	2승
4	KT	43	22	21	0.512	11.5	3패
6	DB	44	22	22	0.500	12	2승
7	KCC	43	21	22	0.488	12.5	5패
8	인삼공사	44	20	24	0.455	14	1패
9	SK	43	14	29	0.326	19.5	1승
10	삼성	44	10	34	0.227	24	9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메이슨	LG	26.5	① 박찬희	전자랜드	5.9	① 라건아	현대모비스	14.4
② 펠프스	삼성	26.2	② 연로	오리온	5.5	② 메이슨	LG	14.3
③ 포스터	DB	26.1	③ 해인즈	SK	5.5	③ 펠프스	삼성	13.8
④ 브라운	KCC	25.4	④ 이정현	KCC	4.3	④ 윌리엄스	DB	13.6
⑤ 라건아	현대모비스	24.4	⑤ 그레이	LG	4.0	⑤ 브라운	KCC	13.2

여자프로농구 (13일)						
●2018-2019 우리은행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KB스타즈	27	22	5	0.815	0
2	우리은행	28	21	7	0.750	1.5
3	삼성생명	28	16	12	0.571	6.5
4	KEB하나	28	10	18	0.357	12.5
5	OK저축은행	28	10	18	0.357	12.5
6	신한은행	27	4	23	0.148	18

프로배구 (13일)						
●도드람 2018-2019 여자프로배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흥국생명	25	17	8	51	2094
2	도로공사	25	16	9	45	2201
3	GS칼텍스	25	15	10	43	2064
4	IBK기업은행	24	14	10	43	2031
5	현대건설	24	7	17	22	1808
6	인삼공사	25	5	20	18	1815
●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우리카드	30	19	11	59	2614
2	대한항공	29	19	10	57	2776
3	현대캐피탈	29	21	8	56	2643
4	삼성화재	29	15	14	42	2640
5	OK저축은행	29	14	15	42	2479
6	KB손해보험	30	12	18	36	2637
7	한국전력	30	3	27	17	2466

아마추어 경기결과

(14일)

축구 ●제 55회 춘계 대학 축구연맹전(경남 통영)

●1조=인동과학대 1-0 청주대, 고려대 1-1 국제사이버대 ●2조=홍익대 4-1 조선이공대, 조선대 3-0 예원예술대 ●3조=울산대 1-1 우석대, 건국대 3-0 동아대 ●4조=배재대 1-1 순복음충화, 송호대 1-0 동신대 ●5조=용인대 1-0 원광대, 대구대 2-0 수성대 ●6조=명지대 2-0 조양대, 경주대 2-2 유원대 ●7조=광주대 4-0 동원과학기술대, 김천대 2-0 김해대 ●8조=평운대 3-0 김천대, 경기대 3-2 세한대 ●9조=가톨릭관동대 2-2 부산외국어대, 전주지전대 3-0 전남과학대 ●10조=한양대 5-0 신강대, 동덕여대 3-0 한국국제대

●제 50회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경남 양산)

●1조=영문고 1-0 범어고, 개성고 5-0 부산정보고 ●2조=중동고 2-0 을산정중수, 현대고 2-1 서울중앙고 ●3조=수원고고 4-0 영덕고, 한미음축구센터 1-0 용인양지 ●4조=서울이랜드 2-0 수원고, 오현고 0(PK 5-3)0 포항제철고 ●5조=과천고 2-1 두래고, 원주문막 1(PK 3-2)1 김해FC

경기 예고			
주말 프로농구			
●2018-2019 SKT 5GX KBL			
15일	현대모비스	〈 울산동천 〉	DB
	오후 7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SK	〈 잠실학생 〉	인삼공사
16일	오후 7시30분, IB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2		
	KT	〈 부산사직 〉	전자랜드
	오후 3시, IB스포츠		
	LG	〈 창원실내 〉	오리온
	오후 3시, MBC스포츠플러스		
17일	삼성	〈 잠실실내 〉	KCC
	오후 5시, MBC스포츠플러스		
	현대모비스	〈 울산동천 〉	인삼공사
17일	오후 3시, IB스포츠		
	SK	〈 잠실학생 〉	KT
	오후 3시, MBC스포츠플러스		
	DB	〈 원주종합 〉	오리온
	오후 5시, MBC스포츠플러스		

주말 프로배구						
●도드람 2018-2019 여자프로배구						
16일 IBK기업은행 <화성종합실내> GS칼텍스						
오후 4시, SBS스포츠						
17일 현대건설 <수원체육관> 도로공사						
오후 4시, SBS스포츠						

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						
15일 대한항공 <인천계양> 삼성화재						
오후 7시, SBS스포츠						
16일 한국전력 <수원체육관> 우리카드						
오후 2시, KBSN스포츠						
17일 KB손해보험 <의정부체육관> OK저축은행						
오후 2시, KBSN스포츠						

주말 여자농구						
●2018-2019 우리은행 WKBL						
15일 삼성생명 <용인실내> KB스타즈						
오후 7시, KBSN스포츠, SPOTV2						
16일 신한은행 <인천도원> 우리은행						
오후 5시, KBSN스포츠, SPOTV2						
17일 OK저축은행 <서수원실내> KB스타즈						
오후 5시, KBSN스포츠, SPOTV2						

아마추어 경기예고		(15일)
● 축구	● 제 55회 춘계 대학 축구연맹전(경남 통영, 오전11시)	
● 핸드볼	● 2018-2019 SK핸드볼 코리아리그(청주 국민생	
활관	● 남자부 = 두산-인천도시공사(오후5시) ● 여자부 = SK슈가글라이드즈-경남개발공사(오후7시)	
● 아마수하키	● 제 100회 전국 동계 체육대회(강릉하키센터, 오후12시)	